

尹,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경주 3천억 원자로 산단

경산 영남대서 민생토론회 개최
포항·울진 8천억 수소산업벨트
韓 수소 산업의 허브 육성 약속
SMR산업 이끌 800억 펀드 조성
농업 대전환·민자 활성화 협력
경북 우수정책 관련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산 영남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며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및 소형모듈원전(SMR) 국가 산단 조성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원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 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수소배관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제작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경주에 3000억원 규모 SMR 국가 산단 조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 펀드 만들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철우 도지사도 대구·경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국가 아젠다화 △지역의료의 공공책임강화와 안동대·포스텍 의대설립 △민간투자활성화로 도내 신(新)균형발전 실현 등을 핵심화제로 제시했다.

우선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당면한 문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인데 단순한 통합은 힘이 없다”면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많이 이양받아야 미국의 주정부처럼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고 다른 시도도 따라온다”고 언급하고 “다극 체제로 발전해야 지역소멸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이 제대로 되도록 지원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 개편 방향과도 부합한다”면서 “정부에서도 범정부통합지원단을 만들어 통합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방의료제도를 위해 공공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이 지사는 비수도권 의료문제 해법은 ‘공공의료 바로 세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병원이 있어야 아이 낳고 기르기에 좋은 지역이 되며 저출생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의료는 공공으로 가야한다”면서 “경북은 포항·김천·안동에 도립 의료원이 있고 울진·청송·울릉에 작은 의료원들이 있는데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외과 같은 지역 필수 의료는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지역에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안동대에 공공의대를 국가 의료산업 역량강화와 경북의 바이오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포스텍에 의대를 설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로 도내 신(新)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에서 잘하는 정책이 바로 민간투자 활성화이고 특히 문화예술 관광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 자체가 관광자원인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에 호텔·리조트

와 같은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 펀드와 같은 정책 금융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경북이 제안한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고 동해안과 북부권에 휴양 벨트 조성에 대한 지원 의지도 확인했다. 아울러 “새마을 운동본부부 경북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이 선도하는 정책 성공모델인 농업 대전환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한 지원 의지도 확실히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통령은 소독 3배를 달성한 경북의 농업 대전환과 혁신 농업 타운 성공모델에 대해 특히 높이 평가했다. 농업은 돈이 돼야 청년이 많이 온다면서 첨단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것과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농림부에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철우 지사가 다양한 아이디어로 부처 장관들을 많이 압박한다”면서 “능력 있는 시도 지사들이 극제무대에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경북의 사례처럼 지방이 잘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오늘 토론회 내용들을 국정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강두용 기자wondrumkakao@daum.net

최신 트렌드 더한 ‘경북 전통주’로 홈술·MZ세대 공략

세미나 열어 산업 발전 방향 모색
응용법·레시피 등 쇼츠로 홍보

경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9일 본원에서 지역 전통주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 창업예정자 등 25명을 대상으로 ‘경북 전통

주 산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변화하는 전통주 소비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프리미엄 주류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주류제품 개발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차별화 사례공유를 통해 도내 전통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이수진 ㈜솔핀 대표의 올해 전통주 트렌드를 시작으로 김시곤 국제청 주류면허지원센터 팀장이 주류 위생 및 품질관리에 관한 발표를 했고 세계 최초 오미자 스파클링 와인(오미로제)을 개발한 오미나라 이종기 대표의 지역 특산물을 원료로 한 주류 개발과 양조장 운영 사례 순으로 진행

됐다. 지난 2022년 전통주 산업 규모는(국세청) 1629억원으로 2020년 627억원 대비 2.6배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통주 시장의 성장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홈(Home)술 문화와 젊은 세대 사이에 부는 하이볼과 같은 ‘믹솔로지’(Mixology, 술과 여러 종

류의 음료 등을 섞어 만든 칵테일 또는 문화) 트렌드의 인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통주 응용법, 레시피 등을 쇼츠 영상으로 제작해 지역 전통주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오는 7월 중에는 전통주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도 추진한다. 도내 전통주 업체는 22개 시·군 155개 사(2022년 기준)로 대표제품은 안동소주, 경주 법주, 의성 사과와인, 문경 오미자와인 등이 있다. 특히 지난해는 전국 최초로 무가당

와인(샬레임, 고도리와의너리)과 우리 밀 주류(대동제1779 생막걸리, 경주 교촌도가)를 상품화했다. 조영숙 원장은 “세대별 맞춤형 전통주 큐레이션과 전통주 페어링 등 전통주를 즐길 수 있는 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경북 우수한 전통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YouTube 경상투데이

MY UNIVERSE GYEONGSAN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상산’

꽃피다 시민공원 행복경산



‘위로부터의 결합’…TK통합은 지역 소멸 가속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원 발의
대경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 채택
도청 신도시 조성계획 완성 촉구

안동시의회가 지난 19일 제2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김순중 의원을 비롯해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안동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안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동의 없이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며 500만 통합도시로 단계장의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경북은 발전 기회가 줄

어지고 소멸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이철우 도지사에게 도민의 동의 없는 통합추진을 중단 △경북도의회에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의결권 행사 △국회에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북·대구 통합 반대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순중 의원은 “시작은 행정통합을 내세웠지만 과정은 주

도권 싸움으로 대립하고 결과는 갈등과 분열로 끝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경북도지사는 3단계 신도시 조성계획에 맞춰 10만 인구의 행정중심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경북북부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무차입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해야

강명구 국힘 구미을 의원
‘불법 공매도 방지법’ 발의



처리할 수 있는 이른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강명구 국민의힘 구미을 의원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법안을 발의 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20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매도 거래 과정에서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수기로 거래 내용을 기록하는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방식 때문에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매도를 전자적으로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식 시장의 투명성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외분기자ub0104@hanmail.net

김옥랑·이승훈 봉화군의원, 지역 돌보는 열혈 의정 ‘눈길’

2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 펼쳐
독립운동사 적극 홍보 필요성 강조
계절근로자 실효적 지원 강구 건의

지난 19일 열린 제265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김옥랑·이승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펼쳤다.

김옥랑(사진 왼쪽) 의원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봉화의 독립운동사를 알리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군의 보훈예우수당 수령자 219명 중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수당을 받는 이들은 42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향산 이만도 선생 일가족의 묘역이 재산 바드실에 있고 외부의 독립투사들이 산간을 누비며 일제에 항거했던 전투지역이 봉화 곳곳에 있지만 관리상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산 일가족 묘역과 관련해 정기 점검과 보수작업을 통해 묘역을 역사적 교육의 장소로 활용 △봉화의 독립운동가와 유공자의 기록물현



황관 현행화 및 역사적 배경과 인물들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판을 설치 △봉화군청, 보훈청, 경북도 독립기념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옥랑 의원은 “봉화인들의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리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나은 봉화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사진 오른쪽) 의원은 지역 내 계절 근로자의 거주형태 및 관리 실태를 파악,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매뉴얼과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봉화군은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 저출생, 사회인구 감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올해 5월 현재 42.14%를 넘는 초고령사회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 유입 정책의 효과도 낮아 농촌 일손 부족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2024년 6월) 지역 내 등록 외국인인은 398명으로 봉화읍 186명(46.7%), 춘양면 47명(11.8%), 석포면 31명, 물야면과 봉성면에 각각 30명 등이 거주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50명이 임국해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에 투입되고 있다.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공급 안정화 계획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를 체결해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임국시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농가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계절 근로자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승훈 의원은 △농협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중앙기 Road-map을 수립 및 읍·면지역별 폐교를 보수해 전용 숙소로 활용 △외

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계획단계에서부터 출국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과 통역·상담 등의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급매뉴얼을 재정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임금의 안정성 및 주거 및 식사, 통역, 보험, 전문상담 인력 배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복지 개선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승훈 의원은 “지난해 입국한 계절 근로자 557명 중 7명이 무단이탈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절 근로자 캄보디아인 24명을 ‘청량산 비나리 마을’에 배정해 농촌활력과 직인 1명과 여행자 보험 및 산재보험의 지원, 통역지원과 사업장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 2명의 인력을 배치했으나 8명이 무단이탈했으며 특히 올해는 6월 현재 입국 계절 근로자 중 2명이 무단 이탈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무단이탈의 주요한 요인은 임금 및 주거문제, 전담부서 및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 부재와 전문인력의 부족이라 보인다”고 했다. 정취영기자jhy4430@hanmail.net

동명·지천-대구 북구 간 자유학구제 확정

정한석 도의원 2년의 노력 ‘결실’
정희용 의원 물밑 지원사격 ‘눈길’
개정안 2025학년도부터 적용 전망

정한석 경북도의회 의원이 2년간 노력한 ‘철곡군과 대구(북구) 간 중학교 자유학구제’가 분회의를 거쳐 확정된 다.

경북도의회는 21일 제347회 본회의에서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4학년도 경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일부개정고시안’을 심의한다.

고시안은 지난 12월 소관 상임위원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철곡군 동명중학교(동명면)·신동중학교(지천면)의 대구 7학군으로의 자유학구 시행과 △대구 북구 읍내동의 철곡 동명중학교 및 신동중학교로의 자유학구제 시행을 담았다.

정한석 도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제12대 도의원으로 선출되고 교육위원회로 배정받으며 철곡군과 대구 북구 간의 중학교 자유학구제에 대해 꾸준히 주민과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전문가들과 해결 방법을 모색해 왔다.

또한 철곡군수와의 면담,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청질문을 통해 공식 의제로 건의·촉구하며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 결과 전반적 의정활동이 끝나는 이달 약 2년 만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실을 보게 된다.

정희용 국회의원도 자유학구제 개편을 위해 묵묵히 뒷받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희용 국회의원도 철곡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난 총선 공약에 ‘철곡학군 통합·조정’을 포함했고 물밑에서 지원사격을 통해 힘을 보탤었다.

정한석 의원은 “동명·지천과 대구 북구 간의 자유학구제 확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반기 임기 만료 전에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철곡군민 모두 하나돼 성원에 왔고 정희용 국회의원과 철곡군, 경북도교육청, 대구시의회,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모두가 달성한 성과로 생각한다”라고 감사의 뜻을 철곡군민에게 전했다.

한편 개정된 자유학구제의 적용은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외분기자p04140@naver.com

저출산 극복

경북형 새날봄

🕒 조기퇴근 돌봄	🎒 학교 돌봄	🕒 심야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MOU) ☑️ 근로자 임금 보전 ☑️ 각종 지원사업 우대 및 환경개선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교육청·도협업모델 ☑️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 AI 기반 돌봄 순환버스 운영 ☑️ 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봄 서비스 ☑️ 24시 어린이집 ☑️ 아픈 아이 긴급 돌봄 ☑️ 24시 응급치치 편의점

▶ 온종일 안전 돌봄 시스템 구축 ◀

저출산 극복에 경주시 골프협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북도, 청년과 힘 모아 상권활력 회복 '시동'

중기부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에 상주 청년기업 '아워시선' 선정 2년간 총사업 자금 10억원 지원 함창명주 활용 상권 창출 목표

경북도가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 4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국내외 관계 인구를 끌어들이는 글로벌 상권을 만들 수 있게 기존 사업을 연계·재편한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신설하고 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예비 사회적기업인 ㈜아워시선을 대표기업으로 공모에 신청했고 지난 19일 최종 선정됐다.

첫해에는 중기부가 공동 브랜드, 상품개발 등 로컬비즈니스 확장과 지역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혁신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2년 차에는 경북도와 상주시가 상권연계 축제기획, 공동브랜드 확장 등 골목산업을 확산할 수 있는 자금 5억원을 지원한다.

'함창명주 리브랜딩' 프로젝트로 명명된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은 명주 공동 브랜드 창출, 놀이공원형 상권 구축, 율스톱형 공동브랜드 센터구축이며 이상의 내용

으로 청년의 창업 지원, 관계 인구 유입, 지역 대학 관련 전공자의 외부 유출 완화 및 일자리(창업) 창출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과거에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던 함창 명주의 옛 영광을 현대적 관점에 맞게 재해석해 상주 함창읍 지역에 새로운 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대표 기업인 ㈜아워시선은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 함창으로 돌아와 폐업한 찜질방을 '명주정원'이라는 카페로 재구성하고 상주 지역에서 외지인이 가장 많이 오는 곳으로 바꿔 폐허에서 청년 일자리 십여개를 창출한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이민주 대표는 "스스로 살아가는 곳

을 선택하고 환경을 자신의 색에 맞게 바꿔 가는 것이 로컬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더 이상 문화적, 직업적 요건의 제한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고 삶의 터전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선정 소감을 전했다.

최영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자신들 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 후배들의 앞길도 생각하는 지역 청년 기업의 도전이 무척 기특하다. 사회적 기업이 주도한 지역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상권 형성과 청년 창업 유입,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성장형 부자어촌마을 실현 방안 강구

'어업인 소통 정보 은행' 개설... 안전조업·편의제공 모색

경북도는 20일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에 '어업인 소통 정보은행'을 개설하고 지역 어업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어업 대전환 및 어촌 저출산 극복', '성장형 어촌마을 탐바꿈' 등 부자 어촌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어업인 소통 정보 은행'은 북부지원과 지역 어업인들의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건의에 따라 영덕군 강구면 구계항 소재 어업기술원 북부지원(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유희공간에 개설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가 주도하는 어업 대전환 및 어촌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소멸 위기 어촌마을에서 성장형 어촌마을로 탐바꿈하는 등 부자 어업인 소통 정보은행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원명(경치마을) 지역어업인 대표는 지역 어업인의 우선 현안인 구계항 내 모래 준설과 안전 조업 지원과 편의 제공을 지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북부지원은 어업인의 애로사항인 항 내 모래 준설 해당 부서에 건의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어업기술원 북부지원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는 어업지도선 관리 업무 및 수산 재해예방, 어선 안전 조업 지도 및 안전사고 지원업무 등을 수행한다. 북부지원은 안전조업과 양식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해마다 14만 건의 수은 및 재해 정보를 SNS로 어업인들에게 알리고 있다.

어업기술원 북부지원은 '어업인 소통 정보 은행' 운영으로 어업대전환을 위한 어업 및 양식 기술 등 새로운 어업 동향을 홍보하고 어려운 어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 조업과 어업인 편의제공을 적극 지원해 위기의 지방소멸 어촌에서 성장형 어촌마을로 부자 어촌을 실현하는 새로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영석 한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은 "관공서 유희공간을 활용한 '어업인 소통 정보 은행'이 지역 어업인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고 경북 동해안 유희 공간을 활용한 안전 조업 지원과 어업인 편의제공으로 위기의 어촌에서 희망 어촌으로 탐바꿈하는 적극 행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도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숙련도평가 6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올해 美 환경자원학회 주관 시험 토양 분야 12개 항목 모두 '만족'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 주관 '국제숙련도 시험' 토양 분야에서 6년 연속(2019년~2024년)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국제 인증을 받았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해마다 전 세계 분석기관을 대상으로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원은 올해 국제숙련도 시험 토양 분야 12개 항목에서 모두 '만족' 평가를 받아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선정됐다.

연구원은 지난 2019년 국제숙련도 시험에 처음 참가해 만족 평가를 받은 후 올해도 최우수 분석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으로 인정받음으로써 6년 연속(2019년~2024년) 최우수 분석



기관 국제인증서를 획득하고 있다. 이화성 환경연구부장은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최우수 분석기

관으로 인증됨으로써 측정분석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철저한 정도관리를 통해 도민에게 정확하

고 신뢰도 높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교육청, 글로벌 디지털 교육 정책 설명회 개최

APEC 8개 회원국 교육정책가 대상 디지털 전문지식·정책·경험 전수

경북교육청은 20일 본청 행복지원동 302호 회의실에서 경북교육청을 방문한 APEC 8개 회원국 교육정책가 1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방문단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교육부가 주최한 '2024년 APEC 디지털 교육 정책 연수' 차 방문했으며 일정 중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 선도기관인 경북교육청을 방문하게 됐다.

APEC 디지털 교육 정책 연수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APEC 역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제안한 사업(2006년 승

인)으로 개발도상국 실무급 교육정책 전문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 전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은 본청 본관 1층 갤러리에서 최선지 정책국장과의 차담회를 시작으로 6층 통합관계센터와 4층 스마트 피스를 직접 둘러보는 등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날 경북교육청은 주요 디지털 교육 정책과 함께 학교 인프라 지원 현황 등을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경북-R컴퓨터 국제 나눔 사업의 취지와 실적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가졌다.

안드레 아스마라 브루나이 교육부 국장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에듀테크를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디지털 교육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교육장학회, 문경 학생들에 희망 '팍팍'

14명 학생에 인당 장학금 50만원 모전윈드오케스트라 단원복 지원

경북도교육장학회는 20일 문경시에 있는 문경교육지원청에서 모전초등학교(문경) 모전윈드오케스트라 단원복 70여벌과 문경지역 학생 1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3월 경북도교육장학회에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이 문경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2000만원을 기부한 것이 계기가 됐다.

모전윈드오케스트라는 지난 2022년 제46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실력 있는 관악합주단이다. 이날 새로운 단복을 입은 오케스트

라 학생들은 장학금 전달식에서 그들이 가진 재량을 마음껏 펼쳐 멋진 연주를 선보였다. 또한 문경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학업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는 14명의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임종식 이사장은 "문경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박영서 경북도의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경북도교육장학회는 앞으로도 경북의 많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응원하고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맞는 경주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경북 북부지역 무분별한 산지개발... 장마철 '또다른 대참극' 우려

최근 3년간 임야 용도 전환 면적 1566만1000㎡ 규모 5507건 달해 지난해 비 피해 큰 예천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10만4000㎡ 농지 조성을 여름 예년보다 많은 비 내릴 듯 지역 산사태·하천 범람 가능성 커 복구 상태·대비책, 문제점 살펴야



기상청 분석결과 올해 6~8월은 예년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한다. 경북 북부지역의 산사태와 하천 범람의 가능성 역시 지난해보다 많아 보인다. 많은 피해를 입은 예천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의 복구 상태와 문제점과 이달부터 시작될 장마를 앞두고 피해 예방 대비책들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찾아본다. 경북 북부의 임야 지역이 사과밭, 축사, 창고 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되면서 집중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경북지역은 지난 2021~2023년 3년 동안 임야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1566만1000㎡ 5507건에 달하며 이 중에 과수원이나 초지 등 농지로 조성된 면적이 110만5000㎡ 165건이다. 축사 및 창고로 전환된 면적도 297건 69만2000㎡, 공장 및 주택, 도로 등으로 2480건 788만9000㎡나 개발됐다. 지난해 산사태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지역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372건 중 51만6000㎡의 산지가 개발됐는데 이중 22건 10만4000㎡의 면적이 농지로 조성됐다. 농지로 바뀐 임야 대부분은 사과밭으로 개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봉화군도 최근 3년 동안 413건 66만6000㎡의 산지가, 영주시도 156건 119만4000㎡의 산지가 농지, 도로, 창고 축사 등으로 개발됐다. 경북도내 북부지역은 임야가 많은

특성상 이 같은 산지개발이 계속되면 비가 올 경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지난해와 같은 산사태는 올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지전용과 같은 임야개발의 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경북의 재해는 자연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별로 없다"라면서 "지난해 산사태 발생한 곳의 80~90%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건드린 곳"이라고 했다. 또 "과수원을 조성하거나 벌목, 도로를 설치하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약한 곳부터 산사태로 무너진다"며 "실제로 지난해 가장 많은 실종자가 발생한 예천군 은풍·효자면은 대표적인 사과 경작지로 과수원이 많은 곳"이라며 산지개발로 과수원을 만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과 재배 적합 지역이 강원도 등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예천군 등 경북 북부지역은 평지보다 낮은 온도의 산지로 위치를 옮겨가고 있다. 예천군의 권오씨(70)는 "사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사과밭 재배의 유혹을 떨칠 수 없다"며 "재배지역을 계속 고지대로 옮겨가더라도 재배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소아·청소년 위협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비상'

감기 증상과 비슷, 회복은 더더욱 느린 의료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소아과학의 교과서에는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말이 적혀있다. 같은 질환도 소아는 성인과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고 다른 치료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소아청소년과 의사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 보호자도 기억해야 할 말이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며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고 이를 둔 보호자들의 걱정이 많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세균에 의해

유발되며 주로 5-9세의 학동기 아이들에서 잘 발생하는데 초기에는 경미한 감기 증상을 보이지만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 치료가 복잡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가래와 같은 감기 비슷한 전신 증상이다. 38-40도 사이의 고열 등 감기와 매우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3-4일이면 회복되는 감기 증상과 달리 증상이 오래 이어진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증상 없이 열만 보이는 등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울진군의료원은 소아임원병동을 가동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안중구 과장, 이상우 과장)이 밤낮으로 상주해 진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아진료 중단 및 운영 축소,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이 같은 행보는 군민, 소아청소년을 자녀로 둔 보호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안중구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마이코플라즈마는 비말 전파이기 때문에 걸린 사람과 주변인이 모두 마스크를 쓴다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일반적인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아이의 감기가 5일 이상 열이 나거나 밤에 기침이 이어지는 경우 소아과 의사를 찾아 상담할 것을 권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의료원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하고 만 15세 이하 소아청소년으로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응급실 소아아간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통해 지역민이 믿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지역 유일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상주기자ksj09102@naver.com

봉화군, 영양플러스사업 식중독 예방 교육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9일 여성문화회관 조리실에서 하절기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영양플러스사업 수혜대상에게 식품위생과 보충식품관리에 대한

교육 및 조리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재료 및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주제로 이론교육, 맞춤형 영양실

습을 시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충식품을 활용해 즐거운 요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별 밀키트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여름철 보충식품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법과 재료의 조리 순서, 손씻법, 식재료의 다양한 활용법을 익혀 호응

이 높았다.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한 참여자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번 더 생각하고 숙지할 수 있었고 영양사와 함께 내 아이를 위한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 교육시간이 즐거웠다"라고 밝혔다. 정휘영기자jhy4430@hanmail.net

휴가철 앞두고 숙박업소 이용 피해 '주의'

대구시, 예약 시 가격·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 꼼꼼히 비교

대구시는 최근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구시민에게 각별한 주의의를 당부하는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대구시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2024년 6월 17일 기준) 호텔 및 펜션 등 '숙박시설'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접수건은 3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건(66.7%) 증가했고 전월 대비 11건(57.9%) 증가했다. 지난 17일 현재 대구시에 '숙박시설'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165건의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11건(67.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2건(13.3%) 등 순으로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111건의 대부분이 숙박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료 요구하거나, 환급 거절로 발생한 피해였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박시설의 경우 예약을 취소 또는 변경할 때 과

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취소·환급 불가' 거래조건에 따라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숙박시설 이용계약의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유형은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환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사업자가 이용예정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불이행하는 경우이다.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은 △숙박예약 시 상품 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 △숙박예약 대행사업자별로 등록된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 △숙박예약 전 이용예정일 변경 등 예약변경·취소 환급규정을 확인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거래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소비자상담센터(053-803-32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중근 시 경제국장은 "여름휴가 기간 중 숙박시설 이용을 계획하고 있는 대구시민은 숙박예약 시 가격과 거래조건, 환급·보상기준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 등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단연 경주”

주낙영 시장 강한 유치 의지 피력
숙박 객실 부족 등 일부분 오해
객관적 자료·근거로 완전 불식
개최 시 동남권 파급효과 극대
지역균형발전에도 상당한 이점

“2025 APEC 정상회의의 가장 최적 도시는 경주입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을 며칠 앞두고 강한 유치 의지를 보였다. 지난 2021년 7월 전국에서 최초로 APEC 유치 도전장을 내고 약 3년간 전 시·도민이 혼연일체가 돼 경주 유치에 최선을 다한 결과 APEC은 단연 경주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완성됐으며 유치라는 좋은 결과로 보답하고 싶다고 소회를 말했다.

최근 일부에서 오해가 있었던 숙박에 대해 경주는 화백컨벤션센터 회의장 주변 3km 이내에 5성급 호텔을 비롯해 대규모 초특급 리조트인 한화리조트(395실), 컨싱턴리조트(555실), 소노벨경주(417실), 블루윈 패일리 콘도(109실) 및 45평-250평 규모의 프라이빗(187실) 등 103개소, 4463실의 정부대표단 수요대비 157%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경 10km 이내에는 1333개소 1만3265실을 확보하고 있어 경제대표, 미디어 관계자, 행사요원 등의 수요대비 280% 객실 확보하고 있다.
특히 블루윈 프라이빗 초특급 스위트 187실은 중소 규모 회원국 및 초청국 대상으로 활용해도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럭셔리한 연수시설도 준비돼 있다. 황룡원(43실), 교원드림센터(104실), 농협경주연수원(235실) 등은 정상용 스위트룸으로 손색이 없다.
2005 부산 APEC 정상회의 시 소

요인 회의장 및 기능실 사용면적 2만6185㎡와 비교해 2만8199㎡로 충분한 회의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회의장, 전시실, 숙박 등 부문단지 내 3분 거리 이내 모든 인프라가 집적돼 회의진행 및 정상 경호의 최적의 요새다.
또한 50만대의 김해국제공항, 대구 국제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4곳을 활용할 것으로 그 중 울산공항을 제외한 3개가 군사공항이다. 이는 기상악화나 일정변경 등 상황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고 혼잡한 민간공항 대비 통제와 관리가 용이해 비용적 이점이 크고 무엇보다 국민 의전과 경호 측면에서 최적의 선택이 가능하다.
최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주 최단거리 공항에서 국제선 운항도 기대되고 있으며 KTX, SRT 등 완벽한 교통망도 내놓을 수 없다.
주낙영 시장은 “얼마 전 관계기관 현장시사에서도 경주가 숙박, 회의장,

공항, 경호안전 등 모든 부문에서 APEC 개최도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고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도 객관적 근거를 갖고 논리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위원들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면서 일부 오해를 완전 불식시켰다. 또한 “경쟁 도시들은 APEC 개최 효과가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경주는 각료회의를 비롯한 200여 회의의 필요시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의 동남권 전체로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시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APEC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경주 유치뿐이다.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해 반드시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사색의 각오로 반드시 유치 시키겠다”며 강한 성공의지를 피력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경주 교통사고·사망자 10년 새 절반 줄었다 경찰과 함께한 교통약자 맞춤 교통 정책 ‘통’

2013년 대비 사고 건수 45.9%
부상자수 51.7% 등 큰 폭 감소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근 10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주에서 11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2명이 숨지고 1670명이 다쳤다.
이는 지난 2013년 교통사고 통계보다 사고 건수는 45.9%, 사망자 수는 48.8%, 부상자 수는 51.7% 각각 감소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기준 경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82명으로 최근 10년간 최다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연도별 사망자 수는 △2014년 69명 △2015년 68명 △2016년 58명 △2017년 43명 △2018년 45명 △2019년 35명 △2020년 30명 △2021년 38명 △2022년 35명 △2023년 4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현저히 감소했다.
2013년 217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458명이 다친 반면, 2023년 1176건이 발생해 1670명이 다쳐 사고 건수는 절반 가까이, 부상자 수는 절반 넘게 줄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연도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는 △2014년 2123건 3468명 △2015년 2057건 3339명 △2016년 1715건 2733명 △2017년 1675건 2599명 △2018년 1626건 2529명 △2019년 1741건 2714명 △2020년 1312건 1914명 △2021년 1259건 1909명 △2022년 1206건 1810명으로 집계됐다.
보행자 사망자 수도 2013년 22명에서 2023년 8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경주경찰서와 함께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는 게 경주시의 설명이다.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진행해 왔다.
또 어르신 안전을 위해 지역 주요 거점 횡단보도마다 교회도 LED 투광등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데 따른 긍정적인 결과”라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교통정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00여 방문객 몰린 ‘황오재즈페스타 vol.3’ 성황리 마무리

공연·글로벌 퍼레이드 등 펼쳐
원도심 상권 알리기 역할 ‘톡톡’

경주문화관1918광장에서 지난 14일, 15일까지 펼쳐진 ‘황오재즈페스타 vol.3’가 2000여명 방문객을 맞이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황오재즈페스타는 유동인구 증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비롯해 시민 및 관광객에게 황오동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문화향유 기회 증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이틀간 낮 3시부터 밤 10시까지 펼쳐진 축제는 글로벌 걸쳐부스와 지역셀러들로 구성된 로컬마켓의 연계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방문객에게 다양한 편의공간을 제공해 전문 재즈뮤지션들의 공연을 감상하게 했으며 황오동만의 아름다운 사를 가졌다.
이번 ‘일대일 가족맺기’ 행사 식료품푸름이하는 한수원 전략경영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300만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선도이웃애복지단에서 일대일 가족맺기 결연가구 31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일대일 가족맺기 사업은 저소득 한



초여름 밤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연계사업으로 진행된 ‘세계를 품은 경주’라는 주제로 진행된 글로벌 퍼레이드는 지난 15일 축제의 서막을 알렸다. 300여명의 지역주민과 관광객, 외국인들이 참여한 글로벌 퍼레이

드는 황오동 풍물패와 응원단, 각 나라의 다양한 전통의상 등으로 흥을 돋우며 화합의 장을 마련해 재미와 감동을 자아냈다.
황리단길부터 원도심 상권을 거쳐 경주문화관 1918까지 진행된 퍼레이드 행렬은 황리단길로 집중된 관광객들에

게 원도심 상권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축제에 참석한 한 관광객은 “전문 재즈공연과 지역셀러 로컬마켓들이 한 장소에서 즐길 수가 있어 볼거리가 넘쳐났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한수원·선도이웃애복지단 일대일 가족맺기 행사 진행

한국수력원자력㈜ 전략경영단과 선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진복·손지연, 별칭 선도이웃애복지단)는 지난 18일 ‘일대일 가족맺기’ 행

사를 가졌다.
이번 ‘일대일 가족맺기’ 행사 식료품푸름이하는 한수원 전략경영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300만원 상당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으며 선도이웃애복지단에서 일대일 가족맺기 결연가구 31세대를 방문해 전달했다.
일대일 가족맺기 사업은 저소득 한

부모가정, 독거노인, 가정폭력 피해가족 등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고위험군 세대에 정기적인 방문과 나눔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장기입원 등으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는 대상자를 정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대

상자를 2명 추가 선정해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진복 동장은 “항상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수원 전략경영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경규 기자seo1141@hanmail.net

Golden City | 경주시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된 도시 경주

미래원전, 신해양 르네상스 도약!

2025년 APEC 정상회의

지역균형발전
APEC 소규모 성장가치 실현
최적도시 경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단 2030년 완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
풍부한 원전 인프라와 함께
글로벌 원자력 산업거점 도약

동남권 해양레저 관광 거점사업

해양레저 지원센터·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고라성플랫폼·나정 수상 레저 체험장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만파식적 공원

생산 유발 **2조 원**
부가가치 유발 **5536억 원**

경제효과 **7조8082억 원**
고용효과 **2만8178명**

감포 나정고운모래 해변 **7만7820㎡**
총사업비 **490억 원**
신라오션리조트 조성

'명품 가로숲길' 로 아름답고 쾌적한 대구

가로변 띠녹지·중앙분리대 등 가로수 식재 적극적으로 추진 8억원 투입한 조성 사업 '눈길'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대구의 명품 가로숲길 10개 노선을 소개한다.

중구의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일대의 국제보상으로 가로수길은 2층로 열식된 대양참나무 나무 터널이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다. 가로숲길 사이로는 다양한 조화와 관목이 식재된 정원형 띠녹지가 시내는 찾는 시민에게 색

다른 경관을 제공해 주고 있다.

동구 경안로는 가로수로 심어진 낙우송이 초례산의 시원한 산바람을 주머니 내부로 불러넣는 바람길 역할을 하는 가로숲길이다. 중앙분리대를 포함해 열식된 낙우송이 주머니 내 차분한 경관과 녹음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우수한 가로수 유지관리로 지난해 산림청에서 최우수 사례에 선정하기도 했다.

서구의 그린웨이는 상중이동의 완충녹지 일원에 조성한 왕복 7km의 산책길로 장미원, 암석원, 상록수원 등 각각각색 테마를 가진 정원을 만나볼 수 있다. 시원한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과 꽃을 즐길 수 있는 서

구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다.

달성군의 죽곡 뱃길소리길에서는 대나무숲이 만드는 이색적인 경관을 즐길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와 습터가 있는 800미터 대나무 터널길은 남녀노소 부담 없이 가볍게 걷기에도 좋고 주변으로 금강강고령보, 디아크 등이 있어 관광지로써도 안성맞춤이다.

가로수는 도심지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태숲으로 녹음을 통해 아름다움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도심의 열을 식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가로수 이 도시의 표면온도를 평균 4.5도 정

도 떨어뜨린다고 한다.

대구시는 가로변 띠녹지, 중앙분리대 등 다양한 공간에 가로수 식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8억여원을 투입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중앙대로, 명천로, 중동로 등 7개 구간에 교목, 관목, 초화류를 식재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은 "올해 특히나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지만 대구의 가로숲길 아래에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시원함을 느끼시며 나무 그늘이 주는 쾌적함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최상의 검진 서비스로 대구시민 건강 지킬 것"

대구의료원, 국가기관평가 '최우수'

대구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4주기(2021년~2023년) 국가건강검진 기관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업무의 적정 수행 여부 평가를 통한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의료원 건강증진센터는 소화기내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분야별 전문의가 직접 검사 및 진료를 시행함으로써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최신 검사 장비와 쾌적한 검진환경 구축을 통해 고품질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밀검사와 오래진료 필요할 20개 진료과 협진을 통해 당일 진료가 가능한 One-stop 검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 이상 소견 시 재검사 진행 후 결과 상담과 추후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김시오 원장은 "최상의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보건대, 글로벌 뷰티 교육 명문가 '입증'

시장배 국제대회·대구국제뷰티엑스포 상 '씩씩이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학년 은동희 2관왕 '영에'

대구보건대학교 뷰티코디네이션학과는 지난 19일 '대구시장배 국제피부미용 경기대회'와 '202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국제뷰티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

뷰티코디네이션학과 학과는 각종 미용관련 대회에서 참가자 전원이 수상하며 뷰티 교육의 명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대구시장배 국제피부미용 경기대회'에는 5명의 뷰티코디네이션학과 학생이 참가해 전원 수상했다.

2학년 은동희는 발 테크닉 부문에서 은상(대구시장상)을 수상했으며 1학년 이가영은 얼굴 관리 부문에서 특별상(대구시 국회의원)을 수상했다.

또 2학년 은동희·마예지·이혜연은 몸매 스웨디쉬 부문에서, 2학년 박은비는 얼굴 특수관리 부문에서 각각 동상(대구시지회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2학년 은동희 학생은 은상과 동상을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24일에는 새한국뷰티산업진

흥협회가 주최한 '202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국제뷰티공모전'에 재학생 43명이 헤어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네일 파트 등 총 63개 종목(중복지원)

에 참가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챔피언그랑프리 2개, 월드그랑프리 3개, 그랑프리 17개, 특별대상

26개, 대상 5개, 금상 5개, 은상 2개, 동상 3개를 석권하며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대회에서 2관왕을 수상한 뷰티코디네이션학과 2학년 은동희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현장 실무에 필요한 기술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었다"며 "대회에서 2관왕을 수상하게 돼 자신감을 크게 얻었고 앞으로 뷰티 전문가로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미정 뷰티코디네이션학과 학과장은 "두 가지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뛰어난 역량과 기술을 입증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뷰티 분야의 지식과 테크닉을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습득시켜 학생들의 뷰티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故 홍기철 상병의 화랑무공훈장' 70년 만에 유족 품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구를 '한눈에'

군위,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

군위군은 지난 19일 6·25 전쟁 중 강원 양구지구 전투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한 홍기철 상병의 화랑무공훈장을 그의 조카 홍승씨에게 전수했다.

이번 전수식은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전쟁 영웅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홍기철 상병은 6·25 전쟁 당시 7사

단 3연대 소속으로 강원도 양구지구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에 참전해 그의 용맹한 활약과 희생은 전우들과 후손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 그러나 전사 이후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여된 화랑무공훈장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유가족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보관되어 있다가 마침내 조카인 홍승씨를 찾아 훈장을 전수하게 됐다.

홍승씨는 "백부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

이 감사드립니다. 이 훈장은 우리 가족에게 큰 자부심이자 영광"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진열 군수는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발굴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모든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이 후대에 전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소개 책자 'INSIDE DAEGU' 발간

대구시는 외국인인 대상으로 대구를 소개하는 책자인 'INSIDE DAEGU'의 영·중·일문판을 해외의 자매·우호협력도시와 해당도시의 재외공관 등 총 42개소에 배포하고 대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시는 외국인들이 대구에 대해 알기 쉽게 이해를 돕고자 지난해 말 영

문판, 올해 초 중·일문판을 발간한 바 있으며 해외 방문 및 국제교류 행사 시 국내외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더욱 적극적으로 대구시를 대외 홍보하고자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글로벌 대구'의 매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제교류 및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달성군은 오는 9월 말까지 폭염특보 발효 시 살수차 4대를 동원해 지역 내 주요간선도로에 도로살수를 시행한다.

군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폭염 발생일수 증가에 따라 이달부터 도로살수작업을 실시해 도로변 복사열을 감소시켜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지열로 인한 도로변형 등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한다.

살수 구간은 △설화명곡역-화원역 △달성군청-옥포읍 행정복지센터 △다사읍 행정복지센터-대실읍 구간을 포함한 8개 구간 약 100km이며 살수차는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 발효 시 일 2회(오전 1회, 오후 1회) 이상 구간을 왕복하며 물을 살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군은 다가올 여름철 무더위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 폭염 종합대책을 세워 실내·외 무더위 쉼터 운영, 스마트그늘막 신규 설치, 클린로드 운영, 폭염대응 캠페인 추진 등을 계획·실시 중에 있다.

최재훈 군수는 "여름철 무더위에 한 발 먼저 대응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요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종찬 기자jongchan2114@naver.com

살국유사의 대교장 군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파워풀 대구와 함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복합형 지방공사' 로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다양한 관광사업 통한 수익창출 경제 활성화·주민 복리 증진 기대

문경시는 지난 1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관광진흥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공사 전환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향후 공사에서 문경경제 케이블카 및 주출산 하늘길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의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등 과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전반적인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 공사 전환의 타당성은 물론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기존의 시설 관리 대행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동시에 수익형 자체 사업 운영을 추가한 '복합형 지방공사'로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시설 관리·운영 위주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는 물론 관광수익의 지

역 내 재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 효과까지 기대된다. 또한 공사에서 향후 문경경제 케이블카 및 주출산 하늘길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수익성과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사에서 이익잉여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면 대항사업 전체를 자체 사업으로 전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의 대항사업비 지출을 절감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시에서는 이달 말 연구용역이 준공된 후 오는 9월경 공사 설립 조례안 등

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공사 전환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등 제반 사항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공사 체제로 출범, 본격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신현국 시장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이 공사로 새롭게 출범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지역의 관광사업을 선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관광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 등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사 전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안동시, 독거 어르신·장애인 돌봄 '앞장'

예안면·4개 민간복지단체 협업 이불 수거·세탁·배달 윈스톱

안동시 예안면은 20일 예안면마을복지계획단, 예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 안동시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늘은 우리 동네 살피는 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늘은 우리 동네 살피는 날' 사업은 동절기 목은 이불을 세탁하지 못한 독거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거·세탁·배달까지 윈스톱으로 진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에게는 재가노인서비스가 통합으로

지원되도록 연계하는 사업이다. 예안면과 4개 민간 복지단체가 민·관 협업 운영 방식으로 진행해 성과가 기대된다. 의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예안면에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장애인에게 일감이 제공돼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또한 세탁 서비스를 매개로 안동시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와 함께 복지서비스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오지마을 특성상 정보가 부족해 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어르신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봉화군 청년농업인, 농촌공동체 활성화 꾸준한 활동 '귀감'

2년째 커뮤니티활성화지원사업 농기계 안전 캠페인·경정비 점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 봉화에서 청년농업인 연구회의 꾸준한 활동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다. 봉화군 청년농업인 연구회는 봉화로 들어와 농업을 시작하고 정착한 청년농업인 10명이 모여 만든 단체로 박준혁 대표를 포함해 구성원 대다수가 20-30대 초반이다. 각자 정착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어렵고 아쉬운 부분들을 자연스레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면서 교류하기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는 청년농업인 커뮤니티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올해로 2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내 주민 대상 농기계 안전 캠페인을 열고 경정비 점검과 전통월채어 안전스티커 키트를 배부하며



계절별 마을 전경을 항공사진으로 촬영해 액자를 제작한 후 마을회관에 기증하는 등 마을 역사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지역민에게 작은 귀감이 되고 있으며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신한 활동이 이어가 주길 주변에서는 바라고 있다.

앞으로 청년농업인 연구회는 읍·면별 순차적으로 사업이 이뤄지도록 내년까지 꾸준한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준혁 대표는 "개인적으로 '파밍머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농기계 및 농자재 소개와 리뷰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과 정보를 공유하

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앞으로 청년농업인으로서 역할과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피드백과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재미있고 보람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니 우리 청년들이 지치고 앓고 힘들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달콤한 예천 참복숭아, 한번 맛보이소~

9월까지 서울 등 대도시 공급

예천군의 대표 농산물 중 하나인 '예천 참복숭아'가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아 전국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20일을 시작으로 예천참복숭아사업단은 서울 등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5kg 단차에 2.5kg 기준 1500여 상자를 싣고 이달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매일 서울과 예천을 오가며 대도시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군에서는 전체 153ha에 이르는 368개 농가가 복숭아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는 중과 2.5kg 기준 2만6000원에서

3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특히 예천 참복숭아는 일교차가 큰 덕분에 기후조건이 복숭아 생산에 적합해 색이 곱고 당도가 매우 높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아 해마다 서울 및 대도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출하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예천 참복숭아는 군 직영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만나볼 수 있다. 현재 예약주문이 가능하며 오는 24일부터 순차 출고돼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우와 여름이다!' ... 의성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오픈

7월 2일~8월 18일 개장 공연·체험프로그램 마련

의성군은 여름철을 맞아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을 오는 7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개장한다고 밝혔다.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은 약 1300㎡ 규모에 세부시설로는 자이언트트리, 왕룡발굴터 놀이벽, 유물발굴터 분수,

금등관벤치 분수, 터널분수 등 조문국의 특색을 반영한 물놀이터 시설이 갖춰져 있다.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박물관은 살아있다'를 물놀이 운영기간 동안 3회(오는 7월 13일, 27일, 8월 10일)에 걸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한다. 또한 박물관 강당에서는 토·일 무료

영화 상영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물놀이장 관계자는 "안전사고 없는 물놀이장 이용을 위해 물놀이장 주변 주차금지 구역에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요원 지시에 반드시 따라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휴장일은 매주 월요일(박물관 휴관일)이며 우천


시 강우상황에 따라 휴장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3-13세 이하는 3000원(군민 1500원), 청소년 및 성인 5000원(군민 2500원)이다. 김주수 군수는 "아이들이 조문국박물관에서 의성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물놀이장에서 시원하게 뛰어노는 학습과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영주 선돌이·마스터즈 축구대회 '기대 만발'

영주시는 오는 23일 시민운동장에서 제22회 선돌이리그 및 제3회 마스터즈(브론즈)리그 축구대회 개막식을 갖고 열띤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선돌이 축구대회와 마스터즈(브론즈) 축구대회는 축구 동호인의 기량을 높이고 선수 간 친목 도모·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영주시리그 축구대회이다. 선돌이 축구대회는 각 클럽 8개 팀 리그별 100여명이 참가해 오는 9월까지

7회에 걸쳐 시 예선 경기를 치르고 경북리그 본선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2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마스터즈(브론즈) 축구대회는 영주, 봉화, 영양 지역 중장년층(50대) 11개 팀, 리그별 200여명이 참가해 오는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우승팀을 가린다. 박남서 시장은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여성 기자bk01410@naver.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훈련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6·25참전 유공자 예우·복지증진에 최선”

고령군, 고 최규병 일병 유족 찾아 무공훈장 전수

고령군은 20일 6·25참전유공자 최 규병 일병의 자녀 최홍곤님에게 화랑 무공훈장과 증서, 기념패를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전수했다.

화랑무공훈장은 나라를 위해 전투에 참전했거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헌신·분투하고 뚜렷한 공적을 세운 전쟁 영웅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국방부와 육군본부의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에서 오는 2027년까지 시행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故 최규병 일병은 6·25전쟁 당시 9사단 30연대 소속으로 강원 철원지구 전투에서 세운 공적을 인정받아 서훈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남철 군수는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늦게나마 유가족에게 훈장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영광스럽다. 앞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상주 북문동 ‘부원농기계’ 착한가게 현판식

상주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난 19일 함께모아행복금고 정기기부에 동참한 ‘부원농기계’ (대표 박동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증한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기부된 모금액을 바탕으로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잘지내시나요~구르트사업’, ‘여성가장 영양제지원 사업’, ‘취약계층 난방지원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원 동장은 “어려운 시기에 수익

금의 일부를 선뜻 기부해 나눔 릴레이에 동참해 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동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착한가게’란 매월 3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한다.

또한 가족구성원의 이름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가정에는 나눔의 의미를 함께 새기고 기념하기 위해 ‘착한가정’ 인증 액자를 제공하고 있다.

임창원 기자changwan12@naver.com

성주 지보험 읍면네트워크분과 우수사례 교육으로 ‘역량 UP’

성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 네트워크분과 위원 30여명이 지난 19일 월항면 하하수미농장 교육장에서 ‘가치 배우기, 같이 달리기’라는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역량강화 교육에서는 김영기 성주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이 협의체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성주읍의 특화사업에 대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설명했다.

타지역 사례도 공유해 좀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엄미현 전문강사를 초빙해 마을 안에서 복지활동가의 역할과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사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수미 분과장은 “민·관 협력과 협의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성주읍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살기좋은 마을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 다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칠곡 응추리 주민들의 ‘특별한 답례’ 이목집중

70년 만 유해발굴 국군 유족에 고사리 등 직접 키운 농산물 선물 김재욱 군수, 추모식 동참해 격려

“당신이 복습과 바꾼 생명 같은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보냅니다.”

6·25 전쟁 당시 한 마을을 지키다 전사하고 70여년 만에 유해가 발굴된 국군 장병을 위해 주민들이 유가족에게 농산물을 보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감동의 주인공들은 6·25 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다부동 전투가 벌어졌던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주민들이다.

응추리 주민들은 20일 자신들이 직접 재배한 고사리, 참기름, 마늘, 쌀, 감자 등의 농산물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고 김희정 육군 중위의 유가족에게 보냈다.

마을 앞산을 지키다 장렬히 산화한 김 중위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김 중위는 백선엽 장군이 지휘했던 육군 제1사단 15연대 소속으로 장교로 임관하고 보름 만에 가산면 응추리 야산에서 전사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지난 2022년 9월 김 중위의 유해를 찾아 유전자 검사 를 통해 지난날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19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중록 응추리 이장이 마을 앞산에서 전사한 김 중위의 안타까운 사연을 주민들에게 전파하며 고인을 추모하고자 제안했다. 이장과 주민들은 논의 끝에 간소한 추모식을 열고 김 중위가 목숨과 바꾼 생명 같은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대구에 살고 있는 유가족에게 보내기로 했다.

이장, 박정섭 마을반장, 홍성화 새마을지도자 등 마을 리더들은 물론 일반 주민 등 20여명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마련해 추모식이 열리는 마을회관 앞으로 삼삼오오 모였다.

김재욱 칠곡군수도 전달식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며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손 팻말을 들고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김태순 칠곡군 천재어린이집 원장과 원생들은 추모식에 참석해 고사리손으로 꾀꾀 눌러쓴 편지를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추모식은 마을 반장이 사회를 맡고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을 대표해 감사 편지를 낭독하는 등 주민 주도로 열렸다. 주민들은 행사가 열린 마을회관 앞에 고인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두 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정성 들여 다섯 개의 택배 상자에 농산물과 편지를

넣고 포장했다. 이중록 이장은 “고인의 희생이 씨앗이 되어 풍성하게 자라난 농작물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나마 감사와 추모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바쁜 생업에도 적어도 호국의 달인 6월만이라도 주민들과 함께 고인을 비롯한 모든 참전용사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 군수는 “앞으로도 칠곡군이 이 땅을 지키다 희생된 수많은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감사를 보내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정재화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 취임

“박 전 대통령의 업적·가치관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달할 것”

정재화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이 취임했다.

구미시는 지난 19일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에서 ‘(사)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이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숭모단체장, 보

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 박동진 생가보존회 이사장 공로패 수여와 이임사 신임 정재화 이사장의 취임사, 내빈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박동진 전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도시 구미에서 생가보존과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신임 정재화 이사장과 힘을 합쳐 박대통령의 정신계승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재화 신임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조국 근대화의 주역

인만큼 업적과 가치관을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가보존회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장호 시장은 “지난 3년간 생가보존회를 훌륭하게 이끈 박동진 이사장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정재화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생가보존회가 박대통령의 유산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자산동 지보험, 어르신 여름나기 도와

선풍기 14대·실버카 10대 선물

김천시 자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올해 신규 특화사업인 ‘취약계층을 위한 여름 가전 및 실버카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자산동 특화사업 예산과 위원들이 모금한 기획사업 ‘함께 모아 행복금고’ 매칭금을 더해 마련한 것으로 진행됐다.

좁은 공간에 생활하면서 여름철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

웃들에게 여름 가전 선풍기 14대와 질병과 장애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버카 10대를 전달했다. 위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풍기를 설치했으며 사용 방법을 친절히 알렸다.

이날 지원 대상 가정을 방문한 한 위원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선풍기를 보고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니 작은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라고 말했다.

이신기 동장은 “바쁜 시간을 할애해 이웃들을 살피고 지역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한다”라며 “폭염 및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세한금속주방
대표 김효철

경주시 유림로 5번길 133
☎ 054-749-7979

경주시수협 황성지점
지점장 김윤정

경주시 황성로 11
☎ 054-771-0604

KB손해보험 경주지점
조봉래

경주시 화랑로 125 5층
☎ 010-3506-2781

포항시, 다문화 청소년 마음 '토닥토닥'

청소년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협력

포항시청소년재단 상담복지센터는 20일 포항시가족센터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위기 및 다문화 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심리·정서 서비스 연계에 상담복지센터와 가족센터가 협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오는 7월로 예정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의 참가자 발굴,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최제민 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두 기관 운영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 사례 지원이 보다 전문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부모 교육, 위기청소년 상담 지원, 디지털미디어 피해 회복, 학교밖청소년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240-9144)로 하면 된다.

최연태 기자cyt4568@naver.com

영천시, 일할 맛 나는 도시 조성에 '한몫'

찾아가는 직장 문화 배달사업 행사

영천시는 지난 19일 지역 내 근로자들의 근무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직장 문화 배달사업' 1차 행사를 청통면 중합복지타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여업체는 청통면 기업 경영인 연합회를 선두로 ㈜원, ㈜한도식품, 한샘생활건강, 성심정밀, 유제이테크, 한울, 덕산엔지니어링, 갯바위, 유주영농조합법인 등 총 9개 사이다.

참여한 120여명 근로자들은 공연 전한자리에 모여 "영천시와 기업체, 근로자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 공연이 기대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도시락 배달, 댄스 공연, 색소폰 공연, 가수 윤서령 공연(미스트롯 출신)에 이어 경품 추첨까지 진행됐으며 근로자들은 가수의 별명을 인용한 '불사조 영천'을 외치고

다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연신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기문 시장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이번 문화배달 사업을 계기로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가 있는 도시 영천, 일할 맛 나는 도시 영천' 조성에 한몫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기업체 및 근로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 사업은 공연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가수 등의 문화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에 처음 시작해 총 5회의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14개 기업, 850여명의 근로자가 참가하며 열띤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은 '대구 군부대 영천 유지' 및 '인구늘리기 운동'을 함께 추진해 시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식열 기자jisy92320@hanmail.net

청도공영사업소 소망봉사단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힘'

청도공영사업소 소망봉사단이 지난 19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도군 각북면 소재의 어르신 이용시설을 방문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지는 노후로 인해 위생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며 봉사단은 낡은 장판과 벽지를 교체하고 시설 내·외부를 정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각북면 삼평리 이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인희 공사 사장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힘쓰고 다른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이어나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김병명 기자hartmona0@naver.com

손병복 군수, 자연재난 '제로' 울진 만들겠다

여름 재난 대비 북부사업장 방문
교량공사 현장 등 안전관리 점검
마을회관 냉방기 정상 작동 확인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난 11일 '2024 군민 섬김데이' 일환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북부권역 지역 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 데 이어 19일 남부권역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먼저 기성면 다천리 산45 인근에 위치한 산불피해지역 급경사지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면정비 및 소크리트 시공현장 등을 살펴 안전관리 점검을 했다.

이후 평해읍 삼달리 663-1 인근 너릿골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호안블럭 및 교량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갑작스러운 폭우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작업자들에게 당부했다. 월송배수펌프장에서는 배수펌프시설,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



하며 근무여건 등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사업장 방문 중간중간 다천1리, 직산1리, 삼달2리 마을회관을 찾아 폭염대비 냉방장치 정상 작동여부

를 일일이 확인하고 불편한 사항은 없

는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손병복 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를 철저히 추진 해 자연재난 제로(ZERO) 울진을 만

들겠다"라며 "공사현장 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근로자 및 사업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i09102@naver.com

"맑고 깨끗한 울릉 위해"... 郡, 하수도시설 처리사업 추진

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노후 하수처리장 처리공법 변경
정확도 청소비용 절감 등 기대

울릉군은 지난 18일 한국환경공단과 '현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나리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건에 대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협약체결로 남양(2020년 8월 준공), 태하(2024년 7월 준공예정), 천부

(2025년 2월 준공예정)에 이어 현포, 나리까지 하수도분야 전문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나리 하수처리장(준공 16년 도래)의 처리공법 변경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량과 현포에 하수처리장 110t(일)을 설치하고 오수관 3.34km 신설 및 우수관 0.424km 개량, 190가구 배수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돼 정화조 청소비용 절감은 물론 건축물의 증축·개축·신축 시 정화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화조 설치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 오수를 따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므로써 악취 차단이 가능해 하수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오수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부유물 및 오니를 제거하고 고도처리된 방류수는 공공수역으로 방류함으로써 하천과 바다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다.

남한권 군수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원 울릉도, 다시 찾고 싶은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명 기자gst3000@naver.com

경산, 기관과 소통 강화로 '의료공백 최소화'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해 논의

경산시는 지난 19일 시보건소 2층 소회의실에서 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경산시보건소, 경산소방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경산중앙병원, 세명병원 응급의료 실무자로 구성한 시 지역응급의료협의체는 같은해 10월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응급환자 부적정 이송 및 미수용 고지 사례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 지역

응급의료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의 업무를 하는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 내 응급 의료체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환경 불안정과 배후 진료 문제로 인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진료가 더욱 절실한 실정인만큼 기관 간 정보공유와 상호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성림 위원장(식품의약과장)은 "응급의료 유관기관의 연계·협력체계 강화로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진

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이 안전한 경산을 만들겠다"고 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

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

세무법인텍스코리아
대표 김 창 호

경주시 원화로 306(성동동 5층)
☎ 054-777-2666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청송 이전초등학교 “아이들 웃음소리 넘치게” 구미대, 연평균 장학금 지급률 ‘역대 최고’

들꽃네 축제의 날 운영 ‘호응’ 경북도립교향악단 음악회 진행 학생·주민 문화 소외감 ‘극복’

청송군 이전초등학교는 지난 19일 ‘들꽃네 축제의 날’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작은 학교에서는 각각 따로 추진하기 어려운 운동회, 학예회, 전시회를 통합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오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사업과 연계해 경북도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오케스트라 음악회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극복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앙산면 체육공원에서 실시해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마을에서의 학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도록 유도했다.

오전에는 인근의 파천초등학교 전교생을 초대해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수의 아이들과 북적거리며 함께 노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통 놀이와 에코 체험활동 부스를 함께 운영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코너에 전교생들의 시화를 전시해 공간 쌓는 시 짓기 실력을 뽐내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오후에는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익힌 우크렐레 연주,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공연 등을 선보였으며 경



북도립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도 함께 감상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가 취약할 수 있는 문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교생과 지역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K 학생은 “오늘 태권도 격파에서 송판이 깨지지 않을까 걱

정했는데 잘 깨져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L 지역주민은 “체육 공원이 북적북적 거러니 참 좋습니다. 이전초등학교 학생들이 늘어나서 아이들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이후군 교장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지

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벽지의 작은 학교가 결코 도시의 큰 학교에 뒤지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이전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강점을 살려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 wdr1211@hanmail.net

1인당 장학금 지급률 93% 넘어 학과추천 장학금 등 만족도 높아

구미대학교가 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률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지난 19일 구미대 결산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546만원으로 장학금 지급률은 93%를 넘어섰다.

구미대의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연평균 등록금 대비 80% 이상을 나타냈고 2022년 90%를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93% 이상으로 역대 최고 지급률을 기록했다.

재학생이 5000명이 넘는 구미대의 지난해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587만원이고 연평균 장학금은 546만원에 달해 실질적인 연평균 등록금은 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구미대의 지난 2019년 1인당 연평균 장학금은 481만원, 2020년 482만원, 2021년 485만원, 2022년 530만원으로

학생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률은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장학금 수혜의 폭도 넓어 2023년 재학생 95% 이상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구미대의 장학 혜택은 다양하다.

△학과추천 장학금 △면학장학금 △글로벌인재양성 장학금 △사랑장학금 △독서인증제 장학금 △마일리지 장학금 등 20여종의 다양한 혜택이 마련돼 있다.

국가장학금을 비롯 저소득 장학금 뿐만 아니라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과 학생들 간 멘토와 멘티를 구성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멘토링 장학금은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승환 총장은 “구미대는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폭 넓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취업 걱정 없고 등록금 부담 없는 대학으로 전문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 ub0104@hanmail.net

안동시청 롤러경기단 간판스타 박민정 선수 女 국가대표 선발... 2년 연속 태극마크 달아

안동시청 롤러경기단 박민정(사진) 선수가 2024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2024 스피드 종목 시니어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됐다.

지난 11일, 12일 이틀간 강원도 강릉시에서 열린 2024 스피드 국가대표 선발전에 박민정 선수가 500m+D 종목에 출전해 46.156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2년 연속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박민정 선수는 지난해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지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팅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의 간판스타다.

한편 이번 선발전에 지난해 국가대표



선수였던 정철규·양도이 선수가 E1만 m, P5000m 종목에 출전했지만 아쉽게 2위를 차지하며 다음해를 기약했다.

오명수 기자 oms727@nate.com

청송 모계1리, 넓은 경로당 쾌적하게 ‘탈바꿈’

청송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현서면 모계1리 경로당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일부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경로당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8400만원(국비 5900만원, 지방비 2500만원)을 지원받으며 지난 4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하반기에 사업 추진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9월에 선정된 부남면 감

연리 경로당은 오는 7월 준공 예정으로 리모델링 중에 있다. 지원 대상 경로당 두 곳은 모두 지난해 ‘군민과 대화의 날’에 신축 건의를 했던 노후된 경로당이다.

윤경희 군수는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고성능 단열재, 창호 환기 시설, 고효율 조명, 냉난방장치 등 노

2곳 그린리모델링사업 선정돼 사업비 지원받아 하반기 추진

후된 시설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 wdr1211@hanmail.net

‘배우고, 맛보고, 소통하는’ 요리교실 운영

영양보건소, 건강한 식습관 도모

영양보건소는 20일 영양플러스 대상자들의 건강한 식습관형성을 돕기 위해 ‘배우고, 맛보고, 소통한다’는 주

제로 요리교실을 운영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 취약요인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 보충식품제공, 가정방문 등으로 추진하며 개별 영양상담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이번 요리교실은 보건소 영양사가 진행하며 보충식품을 활용한 빈혈개선 요리(소고기 야채말이), 제철 완두콩을 이용한 영양만점 간식(호박송편)만들기에 대한 교육과 실습으로 참여자들이 함께 만든 요리를 맛보고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장여진 보건소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이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가 행복한 영양군 만들기’를 위한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tae66611@naver.com

어르신 건강하세요~ 평해읍 지보협, 반찬 지원사업

울진군 평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광욱·전성용)는 지난 19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담은 김치반찬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이번 행사는 읍 협의체 위원들이 김치, 소불고기, 버섯볶음 등 5가지 영양

소가 풍부한 음식을 준비해 취약계층 25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특히 이날은 혹서기 폭염 대비 건강관리 등을 안내하며 무더위에 취약한 점이 없는지 확인했다.

김광욱 읍장은 “무더위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잃지 않도록 충분한 물과 휴식을 취하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성주 기자 ksi09102@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DHP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2024 메디엑스포코리아서 최신 의료산업 흐름 ‘한눈에’

23일까지 대구 엑스코서 개최 의료기기전·치과기자재전 등 720부스 350개 사 규모로 참여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 ‘눈길’ 수출·구매상담 1대 1매칭 주선 국내외 유망기업 성장 도모 ‘힘’



엑스코에서 지역 최대 의료산업 분야 비즈니스 전시회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MEDI EXPO KOREA 2024)’가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대구시가 주최·엑스코,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대구시치과의사회, 코트라가 주관하는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대한민국 건강의료산업전·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MEX)·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DIDEX)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 참가규모 350개 사 720부스(2만㎡) 이번 박람회는 350개 사 720부스 규모로 엑스코 동·서관 2만㎡에서 개최된다. 영상의료, 계측의료, 재활의료, 헬스케어, 치과, 수술 관련 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시스템, 스마트헬스 관련 기술부터 의료기기, 고령 친화용품, 건강식품 및 용품까지 의료산업 전반의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혁신적인 영상진단기술을 보유한 한지앤스 헬스케어, 영상의학에 활용되는 의료장비 솔루션을 제공하는 △DK메디칼솔루션, 국내 최대의 초음파 진단기기 전문기업 △삼성메디슨, 연성 내시경 핵심기술을 보유한 △메디인테크, 치과 관련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스 템플플라트 등이 참가해 세계시장을 주도할 혁신적인 장비와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역 기업들도 우수한 기술을 선보인다. 재활운동부터 인지재활까지 포괄적인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로트라스와 수술실 및 신생아실 장비·산부인과 전문 장비 등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태준메디칼 등 대구 대표 의료장비 업체들이 참가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테크노파크, 식약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등 의료 관련 기관도 참여해 K-의료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소개한다.

■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 조성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시 5대 미래 신산업 중 하나인 헬스케어 분야를 강화해 의료기기의 첨단기술 융합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새롭게 마련했다. 13개 기업이 참가하는 이 특별관에서는 AI를 활용한 암 진단 소프트웨어, 뇌질환 분석, 근골격계 재활치료 솔루션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선보인다.

■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지자체, 의료단체, 의료지원기관이 주도하는 의료산업 전문 전시회로서 K-의료산업의 미래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21일에는 국내 의료기업의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엑스코와 KOTRA가 함께 구매력 높은 18개국 바이어를 직접 초청해 참가업체와의 1대 1 상담을 주관한다. 23개 병원·보건소가 참가할 예정인 구매상담회는 23일 실시되며 지역 의료진과 기업 간 실질적인 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간호책임자 구매상담회 신설 특히 올해는 ‘간호책임자 구매상담회’를 신규로 마련했다. 대구시, 대구시 간호사회, 엑스코가 직접 주최하는 구매상담회를 지역 간호책임자와 참가업체의 1대 1 매칭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수요자-공급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투자상담회 첫선 이번 박람회는 21일 벤처캐피탈(VC) 관계자를 초청해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케어 IR’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삼성벤처투자, BNK벤처투자, 대교인베스트먼트, 시너지IP투자, 카카오벤처스 전문가 5인과 기업들이 대면해 투자 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 기업 중 우수 기업들에 총 4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학술행사·교류행사 개최, 의료진 박람회 개최 기간에는 대구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물리치료사회, 방사선사회, 임상병리사회, 대한의공협회 등 지역 의료학술단체의 학술행사가 동시 개최된다. 의료단체 세미나도 전년 대비 12% 확대 개최해 의료인 6000명 이상이 엑스코를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MEDI hub)의 의료기기 관련 취업 박람회(KOAMEX Job Fair 2024), 식약처가 주최하는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디지털 헬스케어 세미나 등 정부 및 유관기관 주최 행사와 함께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다가간다.

■ 시민 체험행사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마련하였다. 임상병리사 혈액형 검사 체험, 당뇨특별관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최신 의료정보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박람회 기회가 될 예정이다.

2024 메디엑스포 코리아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edie xpo.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여름철 안전 운영 최선” 한수원, 발전소장 회의

수력·양수 발전소장과 운영 논의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점검 계획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19일 예천군 예천양수발전소에서 ‘2024년 재난 대비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전국 수력·양수 발전소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이고 철저한 설비 점검을 통해 홍수 기간(6월 21일~9월 20일) 안전하게 수력·양수발전소를 운영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 하절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시설물 점검을 수행하기로 하고 설비 고장 최소화를 위한 발전소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상조 그린사업본부장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은 물론 기상이변에 따른 홍수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댐과 전력 시설물 등을 철저히 점검해 재해에 대비하고 안전한 발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경규기자seoul411@hanmail.net

가스공사 ‘생명 나눔’ 동참

노사 합동 헌혈 행사 실시 혈액 수급난 해소에 ‘온 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4일 대구 본사에서 ‘노사 합동 생명 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국민 에너지 공급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강도의 자구 대책을 이행하고 있는 가스공사는 최근 지속되는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헌혈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입사 10년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 아이디어 조직인 ‘가스니아’의 주도적인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최근 가스니아들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에 우리 공사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헌혈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추가적인 자구노력 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던 가스공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이 적극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스공사 본사의 많은 임직원들이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경영진부 또한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 역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언제나 국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든든한 힘이 되는 에너지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대폭 증액

전국 최대 규모 914억 지원 마련 특례보증 범위 2천만원→5천만원 청년 창업 6개월→3년 지원 확대

포항시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희망동행 특례보증’ 재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인 914억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시비를 매칭하는 민관상생협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례보증은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1대 1의 비율로 시비를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총출연금의 1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해 주고 출연 금융기관에서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시는 대구은행,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희망동행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포항시와 대구은행이 각 15억원을 출연해 300억원의 보증 재원을 조성했다. 이어 4월에는 포항수협과 오천신협이 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출연해 14억원의 재원을 추가 조성했다. 6월에는 대구은행의 30억원 추가 출연을 이끌어내며 6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 전국 최대규모인 총 914억원의 포항시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하게 됐다.

또한 포항시는 올해 5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기존 특례보증 범

위를 일반 소상공인 2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계해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의 경우 1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기반이 약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지원 대상을 창업 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기간을 늘리고 지원 한도도 1억원까지 증액했다.

특례보증으로 대출받는 소상공인에게는 2년간 3%의 대출이자 지원한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특례보증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신용보증재단 동부센터(1588-7679)로 문의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시 희망동행 특례보증사업은 지자체와 금융기관

이 상생 협력해 시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내년에는 1500억원의 보증재원 조성을 목표로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연태기자cyt4568@naver.com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담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담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바로가기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문의 | 칠곡군 세무과 ☎ 054-979-6244

봉화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봉화경찰서는 지난 19일 '2024년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경찰서장·녹색어머니연합회장 인사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개선을 병행하며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으로 위촉된 조덕희 회장은 "봉화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봉화경찰서 녹색어머니 각자가 등굣길 교통지킴이로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다짐했다.

김주현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안전한 어린이 등·하굣길 조성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봉화, 군민 구강건강관리 '책임'



봉화군이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영유아, 청소년, 일반인, 노년기 어르신에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행사를 개최했다.

박현국 군수는 "이번 캠페인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교육, 검진, 진료 등 다양한 구강건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경주중앙로타리, 이웃에 건강한 여름 '선물'

세부웨스트로타리 지원금으로 생필품·선풍기 등 마련해 전달



국제로타리 3630지구 경주중앙로타리클럽에서 지난 19일 용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 키트와 선풍기(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국제로타리 3630지구 경주중앙로타리클럽의 자매결연 단체인 필리핀 세부웨스트로타리클럽(회장 벤유, 국제로타리 3860지구)의 지원금으로 마련됐다.

경주중앙로타리클럽과 필리핀 세부웨스트로타리클럽은 지난 2012년 자매결연을 맺은 후 해마다 교류해오면서 친목과 유대를 다져오고 있다.

경주중앙로타리클럽은 지난 몇 년간 필리핀의 초등학교에 컴퓨터와 급

수시설을 지원했고 심장병 어린이 23명의 수술비도 지원하는 등 형제와 같은 돈독함을 유지해오고 있다.

김용환 회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때 이른 폭염으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기복 동장은 "나눔을 베풀어 주신 경주중앙로타리클럽과 필리핀 세부웨스트로타리클럽의 회원분들에게 큰 감사와 더불어 지역주민 모두가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기탁된 생필품 키트와 선풍기는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안동-카카오, 원도심 상점가에 새 바람 넣어

안동시가 지역 상권 디지털 전환을 위해 (주)카카오, (재)카카오인팩트 및 안동 원도심 내 3개의 상점가 상인회(남서상점가, 중앙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와 함께 지난달부터 추진했던 '단골거리 사업'이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고객과 만나 소통하고 싶다는 작은 바람으로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오랜만에 안동

원도심 내 상점가에 기분 좋은 활력을 불어넣었다.

원도심 내 57개의 개별점포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고객과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게 됐고 안동 원도심의 대표 카카오톡 채널 '안동원도심 풍류장터길'은 단기간에 누적 친구 수 3100여명을 돌파했으며 다양한 홍보활동이 가능해졌다.

오명수 기자 oms7227@nate.com



예천 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닭백숙 나눔



예천군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19일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건강 닭백숙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예천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식재료를 제공했으며 예천군여성자원봉사회원들이 300인분의 닭백숙과 떡, 과일 등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또한 호명읍 여성자원봉사회는 21일 삼합리 경로당에서, 유천면 여성자원봉사회도 조만간 어르신들에게 닭백숙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숙 회장은 "날이 많이 더워지는 데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낙동면 지보협,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상주시 낙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상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운영에 따라 지난 19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낙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낙동 농협을 비롯한 주요 기관을 방문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낙동면행정복지센터

로 알려주길 당부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캠페인 활동에서는 복지위기 상황을 안제 어디서든 쉽게 알리고 현장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복지위기 알림' 앱을 안내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설명도 함께 실시했다.

임창완 기자 changwan12@naver.com

동 정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김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1일 오전 11시 제347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술술페스티벌 개막식 참석



주낙영 경주시장은 21일 오후 5시 30분 보문단지 내 하이코 광장에서 열리는 술술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다.

10차 경북시장군수협 정기회의



박남석 영주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영덕군서 개최되는 민선8기 제10차 경북시장군수협의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신녕농협 마늘 경매시 집회장 준공식



최기문 영천시장은 21일 오전 11시 신녕면서 열리는 신녕농협 마늘 경매시 집회장 준공식에 참석한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박현국 봉화군수는 21일 오전 11시 춘양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봉화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한다.

성주,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성주군에서는 2024년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인력, 병력, 대상물자, 지정업체 등 자원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동원능력, 임무 고지상태 등을 확인했으며 지역 내 인력 및 관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시행했다. 확인·점검 결과 자원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원 발견시 즉시 교체·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원 조사 시 누락된 자원은 새로 발굴해 오는 2025년도 총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영명 안전과장은 "평시 물자동원 준비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라며 지역의 많은 협조를 통해 동원계획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라고 했다. 김일호 기자 hoyal515@daum.net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의관정제 선비의갯

'의관정제-선비의갯'은 배향인물(이연적)과 선비문화와 관련된 체험, 전시 등 복합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육산서원의 문화적, 건축적, 사회적 가치(OUV)를 확산하고 서원의 무거운 이미지를 다가가기 쉽게 만들고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기간/참가비/대상	장소	내용
의관정제	2024년 4월~10월 1박 2일 (총 2회)	육산서원	· 구각 시그널 · 육산총 동당 · 옥산재 동당 · 옥산클래스 · 양동재 동당
의관정제	2024년 4월~10월 1박 2일 (총 2회)	육산서원	· 구각 시그널 · 육산총 동당 · 옥산재 동당 · 양동재 동당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주최: 신라문화원 후원: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예천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9일 치매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치매 지역사회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는 지역사회 치매 관련 유관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치매관리사업 발전을 위한 자문, 유관기관과의 연계 사업 운영, 다양한 자원 발굴 및 협력을 위해 조직된 민관협력 협의체이다.

참여기관은 △예천군보건소 △예천군노인복지관 △경북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유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국민건강보훈공단 문경예천지사 △군청 △예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7개 기관이며 이번 회의는 2024년 치매안심센터 주요 사업 안내 및 예천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기관별 치매관련 추진사업 소개와 연계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안남기 소장은 "지역 치매관계 기관의 소중한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봉화, 청소년 자아성장 지원 나서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월부터 이번달까지 경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봉화분관과 연계 사업으로 봉화고등학교 도읍반(특수교육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심리검사 및 보드게임 매체활용 집단상담을 4회기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에니그램성격유형검사'와 '보드게임을 활용한 자아성장 집단상담'을 실시해 도읍반 청소년은 자기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며 자아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참석자 중 김모 학생(1학년)은 "보드게임을 활용한 자아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주 재미있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과 동시에 다른 친구의 표현을 기다려 주고 도와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정휘영기자jhy4430@hanmail.net

대구보건대, 창의융합 학습역량 강화 '최선'

DHC '프라임' 발족·리더십 캠프

대구보건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재학생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DHC 우수학생클럽 '프라임' 발대식과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 DHC 우수학생클럽은 대구보건대학교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창의융합 학습역량을 지원하고 우수학생의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통한 핵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프라임(Prime)'이란 명칭은 우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이름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영어로 최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수학생 선발요건은 학과성적 상위 20% 이내이며 면접점수 평균 80점 이상인 자이다. 우수학생클럽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주요 내용으로 △전용 열람실, 맞춤형 학습법 특강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우수 산업체 견학, 산업체 인사 초청 강연 등 취·창업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문화활동 △공동체 의식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내·외 봉사활동 참여 지원 등이다.

이번 리더십 캠프 1일 차에는 DHC

우수학생클럽 '프라임'의 발대식을 시작으로 의사소통역량 향상을 위한 강점 워크숍, 문제해결능력을 활용한 스마트트레이스 활동이 진행됐다. 이후 앞서 경험한 활동 내용을 팀원들과 토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그룹별 발표 주제를 발굴했다.

2일 차에는 융복합역량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 동백섬과 청사포 일대에서 미션활동을 수행

하고 전달 그룹별 발표에 따른 시장이 이어졌다.

클럽 대표인 치위생학과 전공심화과정 1학년 허성주 학생(23·여)은 "앞으로 우수학생클럽 '프라임'의 일원으로서 학교를 대표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김재욱 칠곡군수 "국가유공자 헌신에 감사"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18일 6·25전쟁 제74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 신봉균(97)·류경열(94)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재욱 군수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고 더 나아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참전유공자분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렇

듯 직접 만나 뵈고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칠곡군은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사모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칠곡군은 6·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훌쩍 넘은 점을 고려해 지난 2021년부터 위문품을 전달 중이며 올해도 108명의 6·25참전유공자에게 직접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김천 남면 운곡2리, 환경정화 활동 '구슬땀'



김천시 남면 운곡2리(운양) 마을 주민 30여명은 청결한 마을 조성을 위해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19일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로와 하천 주변의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무단으로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말끔하게 치우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아울러

마을 입구와 도로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마을 공터에 꽃을 심어 마을 꽃길 가꾸기도 추진했다. 조성된 꽃길은 마을에 활기와 생기를 더하고, 지역주민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광수기자kgs5149@naver.com

영주선비도서관, 평생교육 수강생作品展



경북도교육청 영주선비도서관(관장 김영규)은 2024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결실로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영주선비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운영한다. '책, 차이나는 클래스'는 지난 3월-6월 총 12회 진행된 강좌로 그림책

부터 소설, 에세이까지 다양한 작품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강좌 수강생들은 관련 도서를 읽고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내용과 감상을 표현했다.

윤여상기자bk01410@naver.com

상주시장, 여름철 재해 대비 '만전'



상주시는 지난 19일 태풍,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우려지역과 방재시설, 재해예방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강영석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냉림 빗물펌프장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비상연락체계, 시설물 정상가동 여부, 사전통제, 현장 공정관리 등을 점검하고 상시 대비태세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황을 듣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장관계자와 관계공무원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강영석 시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재난예측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대비하고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상주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찬원기자changwan12@naver.com

고령 산림복지과, 일손돕기 '동참'



고령군 산림복지과는 20일 대가야읍 양파 농가를 방문해 일손 돕기에 나섰다.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농부님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했다.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파 수확 작업에 정성을 들이며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김성필 과장은 "부족하지만 지역 농가를 도울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어려운 현장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일호기자hoyai515@daum.net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Yes 문경 공정의 힘

라흐마니노프의 작품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클래식 음악여행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공연
25일 '몰토 라흐마니노프 Vol.2'
해설 최훈락, 소프라노 심규연 등
지역 음악인과 함께 풍성한 무대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시리즈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 공연 컴포저 하이라이트 '몰토 라흐마니노프 Vol.2' 공연이 오는 25일 대구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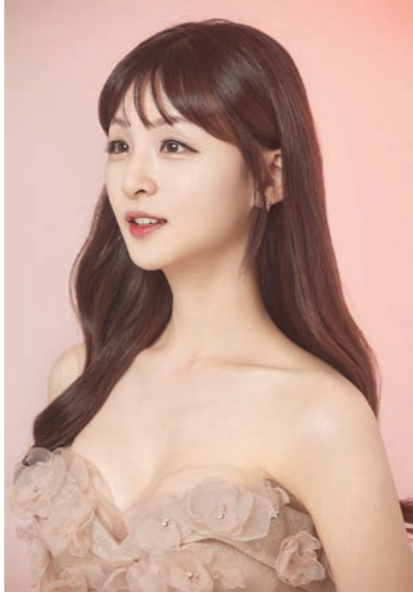
두 번째로 선정된 작곡가인 후기 낭만파 음악의 대표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실내악 작품을 대해 파헤쳐 본다.

■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세계를 통해 그를 들여다 본다

대구콘서트하우스 기획 '컴포저 하이라이트(Composer Highlight)' 시리즈는 클래식 작곡가의 인생과 작품 세계에 대한 쉬운 해설과 연주를 함께 들으며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작곡가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공연이다.

기획 공연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개최되며 이달 만날 작곡가는 후기 낭만파 음악의 대표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다.

■ 라흐마니노프의 실내악 작품을 꿰뚫어



소프라노 심규연



첼로 이희수



피아니스트 윤유정 사진

어 보는 '몰토 라흐마니노프 Vol.2'

이번 공연에서는 라흐마니노프가 보여주는 서정적인 감정과 격렬한 에너지, 응축된 절제와 폭발적인 열정의 양면을 감상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애절함과 풍부한 선율이 돋보이는 그의 첼로 소나타, 성악곡 '보칼리제' 등 주요 실내악 작품을 만나본다.

■ 피아니스트 최훈락의 해설과 지역 음악인들의 연주로 풍성한 무대

피아니스트 최훈락은 계명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독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악대학 피아노 KA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그는 전문예술단체 앙상블 인 대표, (주)스타엔터테인먼트 소속 피아니스트로 활동 중이며 전국 정부·기업 교육 기관에서 인문예술 아카데미 강사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연주로 함께할 소프라노 심규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맨하탄 음대를 졸업 후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원에 출강한다.

첼리스트 이희수는 경북예고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드레스덴 국립음대를 졸업한 후 현재 경산시립교향악단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윤유정은 경북예고와 서울대학교, 줄리어드 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피아니스트 박은영은 계명대학교와 윈스터국립음대를 졸업 후 경북예고에 출강해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티켓은 전석 1만원이며 대구콘서트하우스 누리집과 인터파크 티켓(1661-2431)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어버이의 큰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2일 오후 3시 안동문예전당
KBS국악관현악단 음악공연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폭넓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KBS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공연이 22일 오후 3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오봉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관현악단인 KBS국악관현악단과 국악가수로 유명한 가수 장사익, 국악인 박애리와 남상일 등이 참여한다.

KBS국악관현악단은 지난 1985년 창단연주회 이래 실험적인 시도와 더불어 새로운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음악회를 열어 우리 음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음악의 발굴과 보존,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악관현악단이다.

현재는 박상후 지휘자가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가수 장사익은 현존 최고의 국악계통 가수로 고령의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실력 있는 국악가수로 널리 호평 받고 있다. 대표곡으로 짚레꽃이 있다.

국악인 박애리, 남상일은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실력을 인정받은 실력파 국악인으로, 장사익과 호흡을 맞춰 멋진 국악을 무대에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자식을 위해 고생한 부모세대를 위한 감사의 표현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공연을 준비했으며 평소 국악을 선호하는 이들에 좋은 선물이 될 명품 공연이다.

이번 공연은 R석 3만원, S석 2만원으로 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54-840-3600)로 문의하거나 안동문화예술의전당 누리집(http://www.andong.go.kr/ar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영수 기자oms727@nate.com



도서관서 듣는 모차르트

내달 4일 김천울곡도서관 무료공연
당일 오전 10시 2층서 좌석권 발급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김천시립합교향악단 울곡도서관 마티네 콘서트 'Good Morning Mozart!' 를 개최한다.

마티네 콘서트는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익숙한 작품으로 주로 평일 오전 시간에 공연하는 것을 말하며 '11시 콘서트', '브런치 콘서트'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공연은 '바이올린 협주곡 제3번 G장조 K.216', '호른 협주곡 2번', '주피터' 총 3곡이 연주된다. 추정되는 이다.

배경화 관장은 "시립교향악단은 올 4월에 예술의전당의 초청을 받아 공연할 정도로 전국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라며 "수준 높은 공연을 많은 분이 오셔서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시립울곡도서관 울곡홀에서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 오전 10시부터 울곡도서관 2층 울곡홀 매표소에서 좌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대가야 궁성'의 비밀 오늘 일반에 첫 공개

고령군, 정밀발굴조사 현장 공개 설명회

고령군에서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발굴조사 중인 '주정 대가야 궁성지 I-1구역 정밀발굴조사'에서 대가야 시대에 축조된 궁성의 북벽부 토성벽 일부와 해자 등 궁성의 존재와 범위를 알려주는 방어(放語) 관련 시설이 발견돼 21일 오전 11시 현장공개(고령군 대가야읍 연조리 555-1번지 일원, 고령군 유희회관(명일경로당)맞은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2017년 대가야읍 연조리 504-4번지에서 토성과 해자로 추정되는 시설을 발굴한 이후 2019년 '대가야 궁성지 발굴·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가야 궁성과 관련된 발굴조사를 수차례 진행했지만 통일신라시대 토축시설만 확인

돼 아쉽게도 대가야 궁성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대가야읍 연조리 555-1번지 일원에서 조사 중인 '주정 대가야 궁성지 I-1구역 정밀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 토축시설 아래에 대가야시대 토성벽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다짐성토층이 일부 유존하고 있음을 확인, 대가야시대 해자도 함께 발견돼 대가야 궁성의 존재와 범위를 밝혀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대가야 토성벽의 흔적과 해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대가야 궁성의 위치와 범위 등의 궁금증을 일부나마 풀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韓 최초 백과사전 '대동운부군옥' 무대로

예천박물관, 기탁문중 특별전
이달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정문화·기록유산 660점 공개

예천박물관은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천년 대계의 초석을 놓다' 기탁문중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예천권씨 초간종택의 기록유산과 종가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로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보물 '대동운부군옥' 목판 전체를 비롯해 지정문화유산 660점이 공개된다.

예천권씨 초간종택은 조선 중기 실학자이자 '대동운부군옥' 편찬자인 초간 권문해를 증시조로 하는 유서 깊은 문중으로 권문해의 삶과 저술 활동, 후손

들의 기록유산, 종가 문화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대동운부군옥'은 국내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임진왜란 이전의 역사, 지리, 문학, 풍속, 인물 등을 기록한 것으로 특별전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목판과 고본 모두가 전시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권문해 불천위제사, 종손·종부 취임식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권씨 초간종택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이자 우리 예천의 자랑"이라며 "이번 전시를 기회로 예천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초간 권문해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원자력 수레바퀴
침묵의 천사
정현 지음

월성 1호기 방범이 '멸치', 바나나 6개로 대동령을 만든 이유

값 20,000원 / 문의 ☎ 010-7598-7273

“주민 피폭은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

'정보의 홍수' 시대에, 통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인터넷 언론 시대에 과연 전문직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진실 보도가 존재하기는 할까.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사건은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데 어찌 된 일인지 정국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해 어이없는 혼란을 빚더니 점차 진영 간 싸움으로 비약했다. 탈원전 측과 친원전 측 학자들은 학문적 근거도, 과학적 사실도, 학자적 양심도 다 팽개치고 진영논리에 따라 허술한 자료로, 빈약한 근거로 논쟁이 되기보다 논리의 비약이 심한 '패거리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친원전적인 정영훈 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기폭제였다. 정치권에서 삼중수소 누출 사건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정 교수는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나 멸치 1g 섭취했을 때의 수준"이라며 "월성의 방사능 이야기는 월성원전 수사를 몰타기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을 몰고 왔다...

정현 鄭賢

경북 경주 김포에서 태어남
계명대학교 대학원 명예창작학과 졸업
단편소설 '행복에너지', 당선으로 등단
장편소설 '판도라의 황아리-애물과 보물' 출간
제14회 한국참여문학상(소설부문)수상
지식교양도서 '핵(核)의 커밍아웃' 출간
장편소설 '판도라의 황아리-애물과 보물' 개정·증보판 출간
창작소설 '문무왕(眞)의 비사' 출간
(사)한국문인협회 정회원
경북문인협회 소설분과위원장 역임
경주문인협회 사무국장 역임
칼럼니스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경주시고준위핵폐기물공동대응위원회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경주시원전법시민대책위원회 방사성폐기물분과위원장

hidegod2@naver.com

■ 특별기고

‘역지춘양’ 식 대구경북 통합론

김휘태
전 안동시 통천면장



‘역지춘향’이란 말은 봉화 춘양목과 춘양역 등에 얽힌 전설도 있지만 변 사또가 역지로 수청을 들라고 우격다짐하는 춘향전에서 유래한 말이기도 하다. 어느 것이나 맞지 않는 일을 억지로 끌어다가 맞는 우스운 꼴을 비유하는 상징적인 말이 됐다. 춘양(春陽)과 춘향(春香)의 발음도 비슷하거나와 건강부회(牽強附會)와 같은 자기합리화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지에 시집와서 살다 보니 배부르고 정들어서 막상 떠나기 섭섭하다는 속오도 전해지고 있어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세상 이치를 나타내기도 하는 심오한 전설이기도 하다.

“왔네 왔네, 나 여기 왔네, 역지춘향 나 여기 왔네. 햇밥 고기 배부르게 먹고, 떠나려니 생각나네, 울고 왔던 역지춘향 떠나려니 생각나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대구·경북을 통합하자는 주장은 과연 건강부회의 ‘역지춘향’인가? 아니면 적자생존의 ‘역지춘향’인가?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나 아직까지는 시·도민들의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부당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2년 뒤에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역지춘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역지춘향은 안 되지만 역지춘향으로라도 시·도 통합을 시켜서 ‘살다 보니 좋아요’ 할 거라는 과대망상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착각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역지로 춘향이 시집갈 때는 진정 갈 날이 막막했지만 살다 보니 친정보다 낫다는 속오의 역설적인 순치 효과를 노리고 총대를 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옛그제 경북도의회에서 이러한 시·도지사의 부당행위를 엄중하게 추궁하자 도지사는 경북 동서북부 균형발전 대책을 수립하고 도청사를 유지하며 낙후된 북부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등의 통합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답변을 늘어놓았다. 사전에 정책협의 절차를 무시한 역지춘향이다.

한편 대구시장은 아예 대구직할시로 통합해 북부청사로 하고 생활권 시·군을 묶어서 2단계 행정구조 개편까지 해야 된다는 혁명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한술 더 떠서 중앙과 지방의 행정구조 개편까지 대의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다.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이 정치까지 주무르고 있으니 역지춘향 정도는 갖다 댈 거리도 안 된다. 따지고 보면 갑작스런 통합소동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정치판에 휘둘러서 중구난방이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 가능하고 엄격한 행정절차

법에 따라야 추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역단체 통합이라는 현행법에도 없는 난제를 지도자들 말 한마디에 뚝딱거린다는 것은 어불성실이다.

지난 1887년에 정치행정 2원론이 제기돼 체계적으로 137년 동안이나 직업공무원제도 전문 행정 시대를 발전시켜 왔다. 대한민국에서 1992년부터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민선 단체장을 선출했는데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들이 선거를 의식한 정치행정에 휩싸여 지방행정이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고 그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도 전국 시·도별로 광역시·도 통합을 누가 먼저 하느냐? 삼국시대와 같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경기도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인구감소 시·도는 통합하자. 1400만 인구과 밀 경기도는 분리하자. 이렇게 상반된 조건에도 대구시장은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만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경북도와 경북도 북부 이전은 대한민국헌법 제120조와 123조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한 고도의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광역통합만이 인구소멸의 만병통치약처럼 선포하는 것은 춘양목이라고 속이거나 춘양역으로 철도를 구부리는 역지춘향과 다를 바 없다.

광역통합 제2수도는 현대판 역지춘향이다.

■ 독자기고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이영규
경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감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우리나라에 많은 법정기념일이 있지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늙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피부 시술도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면서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라며 늙어가는 것을 아름답게 승화된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언론 등 뉴스매체를 통해 그토록 건강한 젊은 시절을 보냈으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 자신의 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해 자괴감에 빠진 노인들의 모습이나 원치 않았던 치매 등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좋지 못한 결말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그 상황에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몇 년 전 폐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신 후 병원을 나서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집이 되는 것이 싫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다”고 하셨다. 그래서인지 항암치료 중 병석에 누우신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던 아버지.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건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신 노인분들이 지금은 비록 연로해져서 힘도 없고 판단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지만 젊은 시절에는 어렸던 자녀들을 키우셨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셨던 소중한 분들이셨다는 것을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률이다. 국가의 기본법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는 노인 학대를 하지 않는 것과 비록 작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다리가 돼드리는 최소한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는 노인 학대를 하지 않는 것과 비록 작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다리가 돼드리는 최소한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는 노인 학대를 하지 않는 것과 비록 작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다리가 돼드리는 최소한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노인의 권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는 노인 학대를 하지 않는 것과 비록 작은 말과 행동일지라도 진심으로 어르신들의 다리가 돼드리는 최소한의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 사설

韓 의식주 OECD보다 55% 비싸

우리나라의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50% 이상 비싸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은행 내부에서 나왔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비싸거나 싼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식료품, 옷, 주거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이 심했다. 반면 공공요금은 약 30% 저렴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공개한 ‘유통·생산 등 구조분제 및 BOK이슈노트 보고서’에는 한은 물가동향팀 소속 임용지 차장·이동재 과장·박창현 팀장과 이윤수 서강대 교수의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품목군별 가격 수준은 의식주가 155%로 기타(97%), 공공요금(73%)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먹고 사는’ 부담이 55%나 무겁다는 의미다.

주거 비용도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료(서울 지역 월세) 수준을 보여주는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은 지난 7월 기준 20%를 넘어 주요국 7위에 올랐다. 이에 연구진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으나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 수준이 크게 높아져 있다”며 “특히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의 가격 수준이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인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통계청 집계 누적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3.7%, 생활물가지수 기준 16.4%에 달했다.

연구진 분석 결과 전체적인 한국의 물가 수준은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주요국 평균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는 ‘의식주’ 비용이 평균보다 크게 높은 반면 전기·도시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에 비해 낮은 생계비를 상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한국의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의 1.6배(지난해 기준)에 육박했으며 지난 1990년 1.2배에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공공요금은 같은 기간 0.9배에서 0.7배로 더 낮아졌다. 의료·신발은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의 1.6배였다. 주거비는 평균을 약 23% 웃돌아 여타 서비스 품목을 큰 폭으로 제쳤다.

연구진은 이처럼 의식주와 기타 품목 간 격차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 “높은 농산물 가격의 경우 국내 농업이 농경지 부족, 영세성 등으로 생산성이 낮고 유통 비용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며 “일부 과일·채소의 경우 수입을 통한 공급도 주요국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높은 의류 가격은 국내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가 강한 데다 고비용 유통 경로 편중, 높은 재고 수준 등이 비용 압력으로 작용한 영향”이라며 “반면 낮은 공공요금은 가계 부담 경감과 최근 에너지 충격 완충을 위한 정부 정책이 크게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연구진은 최근의 고물가가 유통·생산 등 구조적 문제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어 오로지 통화정책(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만으로 고물가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물가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농산물·의류 등 OECD 평균보다 가격이 유독 높은 품목들의 유통구조 효율화, 고위험 유통 관행 개선,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등을 단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요금의 단계적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임용지 차장은 “낮은 공공요금은 정부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낮게 유지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의 식료품·의류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은 평균 약 7%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공공요금 정상화를 통한 상쇄 효과를 고려하면 가계의 평균 소비 여력은 약 4% 확대된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 양정로 256(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 / 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2024 Young Ho Nam Win-Win Cooperation the Grand Festival of Harmony

2 0 2 4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함께 대한민국

2024.6.24.(월) - 26.(수)
서울 광화문 광장



The Power of Korea from Young Ho Nam

무대프로그램

6.24.(월)

| 18:30-19:20 |
Dancing with 영호남
(2024 영호남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 19:30-21:00 |
개막식 “영호남의 힘으로 모두 함께 대한민국”

6.25.(화)

| 12:00-13:00 |
영호남 힐링 버스킹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힐링 버스킹)

| 18:00-20:00 |
경상북도·전라남도 예술인이 함께하는
영호남 화·예술 상생 콘서트

6.26.(수)

| 12:00-13:00 |
영호남 힐링 버스킹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힐링 버스킹)



부대 행사

6.24.(월)-6.26.(수)

청년작가 ART展
(영호남 미술작품 교류전)

新(신)화개장터
(영호남 농수특산물 판매 장터)

관광라운지
영호남 관광 홍보 부스 / 영호남의 상생, 협력, 화합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 미디어 큐브

